

한국타이어(주)

과학기술부 장관 방문

지난 2월 11일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 이상태 연구단지관리본부 사무총장, 유성수 연구기술개발 지원과장(서기관), 장관 수행비서관 및 관리본부 과장 등 2명은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민간 연구기관 현장 방문 및 애로 청취를 목적으로 홍보용 VTR과 한국타이어 브리핑을 본 후 연구소 곳곳을 견학하였다. 이날 연구소측에서는 현행 견폐율의 확장, 외산 자동차 형식 승인 완화를 건의하였다.

2000년 대졸 신입사원 교육

새 천년의 희망과 도전을 가득 담은 대졸 신입사원 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직 교육이 실시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연수원과 각 공장 국내 영업 지점을 순회하며 한타문화와 경영현황의 이해, 직장인으로서의 건전한 의식함양,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했고 금산 공장에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현장실습도 하였다. 또한 연고지별 국내 영업 지점에 파견되어 타이어 한 개 한 개가 고객과 만나는 현장체험을 하였다. 교육 마지막날인 2월 23일에는 임원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다. 조중환 사장은 이날 21세기 첫 출발하는 신입사원들을 축하하며 실력을 쌓아 프라이드를 가지고 균형있는 생활자세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앞장서 회사를 내노라하는 좋은 직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신입사원들도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사원들은 뉴 밀레니엄의 꿈과 기대에 가득찬 모습으로 열린 경영, 경영혁신, e-비즈니스, 경쟁우위 전략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창규 상무, 윤여현 상무, 노관규 상무, 최진옥 상무 보는 직장관과 인생의 선배로서 새로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의 세일즈엔지니어 회의

이번 해의 세일즈엔지니어 회의는 해의 지점에 근무하는 세일즈엔지니어들(중근본부 백대현 차장 포함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금산 아카데미하우스 연구소, 서울 본사, 중근본부에서 실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제품의 가치 향상 방안을 중점 토의 하였다. 특히 금산공장의 증설에 따른 우리 회사 TBR제품 서비스 강화 및 PCR UHPT제품 판매사원 방안에 주 관심사였다. 이번 회의는 아울러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해의 세일즈엔지니어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e-비즈니스 교육, 6시그마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간담회에서 조중환 사장은 유로화 가치하락, 생고무값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상당한 액수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금년 한 해에는,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데 전 엔지니어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과 인터넷 환경에 적용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한국타이어복지재단 2000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은 지난 3월 22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양래 이사장, 송 차 이사를 포함한 7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999년 말 한국타이어(주)로부터 수증받은 20억원을 기본 재산에 편입의 건(기본재산 120억원), 199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과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이사 변경 등 4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한편, 이날 민혜영 이사의 후임으로 홍성범 이사가 선임되었다. ※참석자 명단 조양래 이사장(한국타이어 회장), 나웅배 이사(전 경제부총리), 송 차 이사(명지대 총장), 민혜영 이사(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영렬 이사(서울경제신문 사장), 이건호 감사(변호사), 홍원희 감사(과학기술대 교수) TV에도 방송되는 한가족 봉사단 대전공장 한가족 봉사단은 지난 3월

14일과 21일에 각각 무의탁 노인 집방문과 성에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14일에는 신탄진에 혼자 사는 유명연 할머니대를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여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반지하의 집이라 습기찬 바닥에 작업하기가 어려웠으나 스티로폼과 숙련된 솜씨로 이를 깨끗이 해결하여, 깔끔한 집 분위기로 단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달려와 봉사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쌀 2포대를 전해 드리고, 집안 정리를 깨끗이 하고 봉사활동을 마쳤다. 21일에는 대전 관저동 소재 성에 요양원을 방문했다. 건물외 문과 창틀을 밝은 색으로 도배하고 대청소를 실시했다. 여기에서도 봉사단 소식을 전해 들은 관계자들이 각각 요양동, 주방, 단기보호소 및 의류 보관창고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여 잠시 혼란이 발생, 이에 회원들은 각기 분담하여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대전공장 TBR팀의 김춘섭 반장 부인은 어른들께 핸드백과 스카프를 선사하여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환절기에 스카프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다. 한편, 4월에는 MBC 방송국에서 이들의 봉사활동을 밀착 취재하여 TV에 방송된다고 하니 한타맨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제2회 한국타이어디자인대전,전국대학교 방문 홍보」

「제2회 한국타이어디자인대전」을 위하여 본사 홍보디자인팀은 전국 디자인대학 220개교 중 112개교를 대상으로 2000년 3월 27일에서 31일까지 「제2회 한국타이어디자인대전,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공모전과의 차별화 및 공모전의 위상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타이어 소개 및 공모요강 위주로 설명을 하였다. 서울, 경기를 포함하여 지방별로 6개의 팀으로 나누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프리젠테이션 참석학생 수는 총 2,948명으로 한국타이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디자인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디자인팀원들은 열심히 될 것이다.

TV에도 방송되는 한가족 봉사단

금호산업(주) 타이어 사업부

신형인 사장 대한타이어공업협회 21대 회장에 선임

지난 2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 무역클럽에서 개최된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신형인 사장이 임기 3년의 제21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대한타이어협회 대표권과 인사권, 국내의 타이어협회 대표자 자격을 갖게 된 신형인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M&A를 통해 Second, Third Brand를 보유함으로써 중저가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자도 오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선진업체의 동향과 타이어 산업의 발전 방향제시 등 협회 역할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힘으로써 국내타이어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예고했다.

대리점 신년 인사회서 유통전략 발표

새천년의 희망과 함께 시작한 올해의 타이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영업정책과 유통전략을 소개하는 2000년 대리점 신년 인사회'가 1월 21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다. 신형인 사장과 우리회사 임직원, 우수 대리점 사장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인사회에서 신형인 사장은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는 1조 5천억"이라고 말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경영과 소비자만족을 위해 대리점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객 으뜸경영' 실천결의 대회

2000년도 비전경영 방침인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을 으뜸으로'의 달성방안에 관한 방침보고회와 새천년 경영모토인 '고객 으뜸 경영' 실천결의 대회가 2월 25일 광주공장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방침보고회에서는 비전경영 방침의 달성을 위해 부서 단위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진 부문이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의지를 결집하고 적극적인 전개를 다짐하였다. 비전경영 방침보고회에 이어 바로 개최된 고객 으뜸 경영 실천 결의 대회에서는 이한섭(마케팅팀) 팀장과 김전식(품질혁신팀) 팀장이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고객 으뜸 경영을 위해 전 부문이 노력할 것을 선서하였다.

그룹비전플라자 활동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99년 그룹 비전플라자 활동 성과에 대

한 총결산과 올해 추진 결의대회를 겸한 그룹 비전플라자 활동 경진대회가 2월 29일 서울 사옥 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정구 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단, Key Coordinator, 발표팀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그룹 성과고류회 본선 진출 9개 팀과 박정구 회장이 추천한 1개 팀이 열띤 각축전을 벌였으며 최종결과 'PCR 성형능력향상'(스폰서:박양근 상무, 퍼실리테이터:김용훈 대리, 팀원 강성주 리더 외 7명)을 발표한 우리회사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은 비전플라자활동 우수자의 개인 시상도 함께 이루어 졌는데 우수사례 개인부문에서 최영인(광주공장) 상무가 최우수 스폰서상을, 김승하(품질혁신팀) 과장이 Key Coordinator부문(활동 추진자) 최우수상을 김승하 과장, 김동준(기획실) 사원이 공로상을 (Key Coordinator 전원) 수상하였다.

타이어비즈니스誌, 세계 10대 타이어 회사에 우리회사 선정

타이어잡지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타이어 비즈니스'는 최근에 발표한 타이어 업체순위(Global Tire Company Ranking)에서 우리 회사를 10위에 랭크함으로써 우리회사가 국내 최고의 타이어 메이커임을 입증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세계주요 산업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세계 10대 메이커에 드는 경우가 드문 것을 감안하여 우리 타이어가 타이어 업계 공식 순위 기준으로 삼는 타이어 비즈니스의 10위 기록은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타이어 비즈니스는 세계 타이어 업체 순위 뿐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발표하는데 그 중 북미에서의 매출 실적은 우리가 피렐리를 누르고 9위를 차지, 유럽과 함께 양대 타이어 시장으로 평가되는 북미에서도 안정적인 마켓셰어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국내 타이어 업계 수출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시장을 위주로 벌인 광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해외부문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외 TV광고와 더불어 해외 레이싱경기 참여 확대, SCCA (Sports Car Club of America) 유럽에서의 페라리-포르쉐 챌린지 등을 지속적으로 스폰서할 것이며 WAC, BRC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카맨파크 레이싱 마케팅 제휴 조인식

국내 모터스포츠를 선도해 온 우리회사가 지난 2월 14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카맨파크와 레이싱 마케팅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방송인 배한성씨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신형인 사장과 카맨파크 최상기 사장 한국자동차경주협(KALA)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모터스포츠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양산제품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승차감이 우수한 타이어를 생산해 온 우리회사는 앞으로 F3 그랑프리 오피셜 타이어 공급업체 및 F1 그랑프리 타이어 공식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우리회사는 올해 카맨파크에서 운영하는 3개 레이싱팀(라이너, 타이거, 라이거 스타)에 타이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엔지니어와 서비스는 물론 타이어 개발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 호주 자인언트 타이어 테스트 3위

최근 호주의 자동차 전문지인 'WHICH CAR'은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85사이즈 테스트에서 우리 타이어가 피렐리, 컨티넨탈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정상급 타이어들이 진출해 있는 호주에서 한판대결을 벌인 이번 테스트에서 우리회사는 파워맥스(POWER MAX) 769를 내세워 가격대비 성능, 경제성, 평균가격에서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3위에 랭크돼 '99년에 이어 2년 연속 3위를 차지했다. 파워맥스는 특히 젖은 도로에서의 성능 평가에서 탁월한 조작 반응을 보였으며 타이어의 생명이인 안정성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의 제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우리 타이어는 이미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타이어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98년부터 3년 연속 상위 그룹에 랭크되어 있다.

죽음의 경주 원주로 우리 기술력 과시

'죽음의 경주'로 불리는 파르-데카르-카이로 2000 랠리(Rally)에 우리 타이어가 장착된 차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1만km 지옥의 경주에 출전하여 당당히 공식완주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밀레니엄 공식 첫 모터스포츠 대회인 22회 파르-데카르에 출전한 우리 타이어는 파워가드 833과 로드맨처 834로서 기아의 스포티지에 장착되어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한낮의 기온에 잘 견디고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완주하였다. 이 타이어들은 이 대회를 위해 5개월여의 개발기간을 거쳤으며 북미 BAJA-1000 경기 등 3차례의 현지 테스트와 랠리가 벌어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험로에서 시험되기도 했다. 모든 자동차 부품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랠리에서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된 파워가드 833과 로드맨처 834가 완주해 뽐으로써 세계적인 타이어 생산국이라는 위엄을 달성했다.

넥센타이어(주)

CI선포식 개최

2월 9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CI선포식이 개최됐다. 내외귀빈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을 넥센타이어로 변경하고 21세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부도로 인한 부정적인 기업이미지에서 상호를 넥센타이어로 변경하여 고객들에게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최소한 백년은 책임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며 약속인 것이다. 이규상 사장은 캐릭터로 길(Road)과 사람(-ian)을 합친 미스터 로디언(Mr.Rodian)의 탄생을 알리고, 경영정상화과정과 부분별 추진내역 및 실적, 그리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중장기경영전략 'START21'을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10년만에 흑자기업으로 돌아서고 초우량기업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노조가 앞장서서 회사살리기에 전력한 결과이고, 또한 회사발전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우성타이어(주)는 넥센타이어(주)로 자회사인 대일알루미늄은 (주)넥센알루미늄으로 한국강선을 (주)넥센강선, 대일스포츠를 넥센스포츠로 상호를 변경했다.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가져

제42기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 2월 17일 10시 본사 교육실에서 주주, 당사 임원진, 유관기관, 국내외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중 82.28%

가 참석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안:제42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현행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WOOSUNG TIRE CORPORATION라 표기한다.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NEXEN TIRE CORPORATION라 표기한다. 제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3회계년도에 걸쳐 회사의 외부 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선임위원회가 제청한 안건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의장인 이규상 사장은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점차 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며, 주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초우량 기업으로,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될 것임을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주주권리를 존중하고 열린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지하치장, 양지물류센타 명칭 변경

몰류팀 제품관리과 소속인 양지하치장(경기도 용인 소재)이 2월 17일부 명칭 변경됐다. 기존-우성타이어(주) 양지하치장 변경-넥센타이어(주) 양지물류센타로 변경됐다.

신협 정기총회

신협은 지난 2월 24일 본사 교육실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99결산보고(11%배당)과 함께 이성경 노조위원장이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향후 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미은행장 당사 방문

3월 8일 신동혁 한미은행장은 우수고객 탐방을 위해 우리회사를 방문했다. 신동혁 은행장은 강병중회장과 환담을 나눈 뒤 박길린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타이어의 제조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회계교육 실시

지난 3월 23일과 24일 본사 교육실에서 경리과 주최하에 본사 및 서울사무소, 각 지점 회계담당자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현업회계전표오류사항과 계정과목 및 부가가치세, 제조원가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으며, 참석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희롱예방교육

3월 24일 본사 교육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본사 관리직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 3월 17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시행령 제9조)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라는 비디오 시청으로 교육을 대신했다.